

원대한 꿈 향한 무한도전 “우리 야구는 현재진행형”

프로야구 빛낸 별들의 산실 광주동성고 야구부

믿음의 야구로 쉼없는 소통…저마다의 속도로 목표 향해 매진
‘빨리가는 팀 아닌 끝까지 가는 팀’ 김재덕 감독 철학 스며들어
탄탄한 반석위 시간을 벼텨낸 팀,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기대

김종모, 이순철, 흥현우, 한기주, 양현종….
수많은 스타들이 이 학교를 거쳐 갔다. 그러나
광주 동성고 야구부 하루는 여느 학교와 크게 다
르지 않다. 오전·오후 수업을 마친 뒤 훈련장으
로 이동하고, 겨울철인 지금은 체력 위주의 프로
그램으로 하루를 채운다. 훈련이 끝나는 시간은
밤 9시를 훌쩍 넘기기 일쑤다. 학생 선수라는 본
질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학업과 훈련을 병행하는
구조다. 지난달 24일 찾은 동성고 야구부 훈련장
역시 예외는 아니었다. 추운 날씨 속에서도 선수
들은 굵은 땀방울을 흘리며 하루를 마무리하고
있었다.

이 일상을 30년 가까이 지켜보고 있는 인물이
있다. 김재덕 감독이다. 1998년 동성고에 부임한
이후 올해로 27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다.

전국 고교야구 지도자 가운데서도 손에 꼽히
는 ‘장수 감독’이다.

김 감독은 자신의 시간을 길게 설명하지 않는
다. 그는 이렇게 말한다.

“27년을 했다고 특별할 건 없습니다. 대신, 야
구를 둘러싼 환경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는
확실히 느낍니다.”

동성고 야구부의 역사는 고교야구 전성기와
맞닿아 있다. 1970년대 전국대회 우승을 계기로

이름을 알렸고, 이후 수차례 전국무대 정상과 준
우승을 오가며 호남 야구의 한 축을 형성해 왔
다. 한 시대를 대표했던 선수들이 이 학교를 거
쳐 갔고, 그 이름들은 지금도 프로 무대에서 이
어지고 있다. 양현종을 비롯해 수많은 동문들이
그계보 위에 있다.

김 감독은 이런 역사 앞에서도 ‘명문’이라는
표현을 쉽게 쓰지 않는다.

“학교 야구는 한 해성적으로만 평가할 수 있는
구조가 아닙니다. 선수들은 3년을 거쳐 나가고,
그 이후의 시간이 더 길어요.”

최근 몇 년간 동성고는 뚜렷한 성적을 내지 못
했다. 김 감독 역시 이를 숨기지 않는다. 그의 시
선은 언제나 한 시즌 너머를 향해 있다.

“최근 몇 시즌이 쉽지는 않았습니다. 그래도 새
해 목표는 분명합니다. 4강입니다. 그 문을 넘어
야다움이 보이니까요.”

목표는 ‘과정’이 아니라 ‘결과’다. 김 감독은 새
시즌을 앞두고 가장 이루고 싶은 것으로 ‘성장’
보다 ‘성적’을 먼저 언급한다. 현실적인 판단이
다. 다만 그 성적이 단기 성과로만 남아서는 안
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.

“성적을 내야 선수들도 자신감을 갖고, 진학도
합니다. 결국 선수들 앞길과 연결된 문제입니다.”



지난달 24일 동계훈련을 마친 동성고 야구부 선수들이 김재덕 감독(오른쪽)과 새해 더 큰 도약을 다짐하는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.

/조영권 기자

현장의 고민은 성적만이 아니다. 지역 고교야
구 전반에 걸고 있는 선수 수급 문제 역시 동성
고의 현실이다. 우수한 초·중학생 선수들이 수
도권으로 이동하는 흐름은 갈수록 뚜렷해지고
있다.

“잘하는 선수들이 서울로 가는 건 요즘 거의 흐
름처럼 됐습니다. 지역 학교들이 공통으로 안고
있는 고민입니다.”

동성고는 같은 재단의 중학교를 중심으로 선
수 육성을 이어가고, 부족한 포지션은 전남·광
주권 전반으로 눈을 넓힌다. 그러나 주거 여건과
제도적 한계는 여전히 부담이다.

김 감독은 “주어진 조건 안에서 최대한 해법을
찾는 수밖에 없다”라고 답답히 말한다.

지도 방식 역시 시대에 맞게 변해왔다.

“지금 선수들은 예전과 다릅니다. 강하게 밀어
붙인다고 따라오지 않습니다.”



김 감독은 선수들과의 대화와 설명을 중시한
다. 야구 기술뿐 아니라 왜 훈련이 필요한지, 어
떤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공유하는 데 시간
을 쏟는다. 그가 말하는 지도자의 역할은 ‘통제’보
다 ‘조율’에 가깝다.

“핀해보여도 질서는 있어야 합니다. 그 균형을
맞추는 게 요즘 지도자의 숙제죠.”

동성고 야구부가 지금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
배경에는 학교의 지원도 있다. 김 감독은 학교
측이 훈련 환경과 행정적인 부분에서 꾸준히 뒷
받침해 주고 있다고 말한다.

“요청하면 최대한 들어주시려는 분위기입니다.
그 신뢰가 있어서 현장도 안정적으로 움직일
수 있습니다.”

김 감독의 시선은 늘 선수들의 ‘이후’로 향한
다.

“요즘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이 다치지 않고,
원하는 대학이나 프로로 진학하는 겁니다. 그게
지도자로서 가장 바라는 그림입니다.”

27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, 그는 여전
히 동성고 야구부를 ‘완성된 팀’이라 부르지 않
는다. 대신 이렇게 정리한다.

“동성고는 늘 만들어가는 팀입니다. 과거로 먹
고사는 팀도, 한 해로 끝나는 팀도 아닙니다.”

이 철학이 말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은 김도영
의 성장 과정이 보여준다. 동성고 시절 김도영

(現 KIA 타이거즈)은 재능을 인정받은 유망주
였지만, 완성된 선수는 아니었다. 기본기와 반복
에 초점을 둔 훈련 속에서 그는 조급함 없이 자
신의 야구를 다져갔다.

김재덕 감독은 당시를 이렇게 기억한다.

“잘 치고, 잘 덜리는 선수였습니다. 하지만 재
능보다 더 큰 무기는 성실함이었습니다. 언젠가
는 큰 선수가 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.”

동성고는 유망주를 서둘러 앞세우지 않았다.
조급함을 강요하지 않는 환경 속에서 선수들은
각자의 속도로 시간을 겪었고, 그 과정은 한 명
의 사례를 넘어 팀의 기준으로 남았다.

선수들의 이름은 특정 대회의 성적일 아니라,
이 학교 야구부가 어떤 방식으로 선수를 길러왔
는지를 설명하는 흔적에 가깝다.

시간을 견뎌온 팀, 그리고 또 한 번의 시즌을
준비하는 야구부.

동성고의 겨울은 그렇게 조용히 흘러왔고, 이
제 다음 목표를 향해 방향을 맞추고 있다.

김재덕 감독은 2026년을 맞은 동성고 야구부
를 이렇게 정리했다.

“우리는 빨리 가는 팀은 아닙니다. 대신, 끝까
지 가는 팀이 되고 싶습니다.”

올해도 동성고 야구부의 하루는 크게 달라지
지 않는다. 그러나 그 하루가 차곡차곡 쌓여 향
하는 방향만큼은, 분명하다.

/주홍철 기자

“야구는 세대를 넘어 동성인을 하나로 묶는 힘”

인/터/뷰 이동만 동성고 교장

▲ 학교 차원에서 바라보는 동성고 야구부의
의미는 무엇입니까

-동성고 야구부는 단순한 운동부를 넘어,
동문과 재학생, 졸업생을 하나로 이어주는 역
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야구를 매개로
세대가 연결되고, 학교 공동체가 다시 모이는
계기가 되기도 합니다. 그런 점에서 2020년에
는 오랜만에 전국대회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
통해, 학교 구성원들이 함께 기뻐할 수 있는
시간이 오길 바랍니다.

▲ 학교 책임자로서 김재덕 감독과 선수단
을 바라보는 신뢰의 근거는 무엇입니까



-김재덕 감독은 오랜 시간 학교를 지켜
오며 선수들을 지도해 왔습니다. 성적 이
전에 학생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를 잘 알
고 있고, 시대 변화에 맞춰 지도 방식도 유연
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. 그런 지도자이기 때
문에 학교 역시 현장을 믿고 맡길 수 있다고 생
각합니다.

▲ 야구부 지원에 있어 학교가 가장 중요하
게 생각하는 원칙은 무엇입니까

-학교 입장에서 야구부는 단기 성적을 내기
위한 조직이 아니라, 학교의 역사와 전통을 함
께 만들어가는 구성원입니다. 그래서 지원 역
시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점에서 이뤄
져야 한다고 봅니다.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
에서 훈련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돋는 것이 학
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.

▲ 새해를 맞아 동성고 야구부에 전하고 싶
은 응원의 말이 있다면…

-특별한 당부를 하기보다, 지금처럼 각자의
자리에서 끝까지 책임을 다해주길 바랍니다.
무엇보다 부상 없이 한 해를 보내는 것이 모든
출발점입니다. 학교는 결과와 상관없이, 야구
부가 훈련을 없이 훈련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
지원을 이어가겠습니다.

/주홍철 기자

2026 붉은말의 해, 병오년

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

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.
서로 마음을 나누고 희망을 더하는 첫날 아침 함께 행복을 키우는
한 해 보내시길 바랍니다.

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(광주)
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

예약문의 062) 363-4040
<http://gwangju.kahp.or.kr>